

위로와 희망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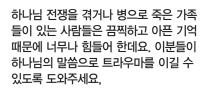
성경을 함께 읽어요



디도서 1:1-9 디모데후서 3:13-17 4:1-8

야고보서 1:1-8

생각해요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선교회에서는 성경 사랑 운동을 통해 캐나다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부흥하고, 동시에 이 귀한 말씀을 아직도 자기 말로 갖고 있지 못한 소수민족들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절 당 1센트 혹은 장 당 10센트씩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 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rbbb.wycliffe.ca 416-888-2262

Copyright © 2012 by Wycliffe Canada. All rights reserved. 모든 저작권은 위클리프 캐나다에 있으며, 동의/허락 없이 무단 전재와 복제 및 온라인 게시를 금합니다.

이번 주에 읽게 되는 성경 말씀에서는 한 가지이야기를 계속 만나게 된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하십시오.'(약1:2, 벧전4:13. 다음 주 110:34).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처음부터 계속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든 일은 어떤 사람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리고 교회도 말입니다.

아직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에 사는 농부인 로버트도 아내를 잃고 나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루 하루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씨 뿌리는 떠가 되자 너무나 힘들어 졌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일은 보통 아내가 하던 일이였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내가 너무나 생각이 나서 울며 힘들어 했습니다. 큰 아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얼마 전에 야고보서 1:2~4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용기를 내라는 말씀 을 함께 읽었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5:35-44절도 같이 읽었잖아요. 부활이야기, 영원 히 사는 새로운 몸에 관해서 말이예요. 힘을 내세요. 아빠!"

아들이 다시 말해준 말씀에 저는 크게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 아들이 영 어 성경으로 읽었더라면, 그 말씀들을 제대 로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Luci Tumas and Patrick Wilson 수집 및 편집, *The Power of the Word*, 44쪽 인용)

전쟁이나 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 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 처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처는 트라우마(충격적인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견디기 어려워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마음이 더욱 아프고 힘들어 진답니다. 이들에게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달래주는 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 설 수 있는 힘이 되는 소망도 필요하답니다.

마가렛 힐과 존 옴마니는 각 부족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와 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언어가 아닌 자신들의 마음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큰 도움이 된다고 말입니다. 특히 시편을 읽으라고 가르쳐 주었답니다. (http://ww.wycliffe.net/stories/tab-id/67/Default.aspx? id=2536&pg=1&topic-id=28&library=T)

시편에는 슬픔과 어려움, 실망으로 포기 하고 싶은 마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이야기하며 기도하는 내용도 있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노래 할 때, 그 끝은 희망이 된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없는 부족들에게 그들의 말로 성경이 전해지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가 된답니다.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 힘을 얻도록 함께 기도해요.